

쏟아지는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번엔?

바른미래 "2월국회서 최우선 처리"...정의당 "당 차원 발의" 민주·한국당 소극적...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빠져 미지수

여야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한 입법을 앞다퉈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져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2015년 만들어질 당시 애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있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전례가 있고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 소극적이어서 이번 법제도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이 회기 안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이배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너무 많은 부당성을 보유했다면 처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에 당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 입

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독립기구로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적

야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며, 의원 재정회계 정보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제도개선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혁신자문위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발제로 자체 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8일 회의에서 의결해 문 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30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을 만나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한국당 당권 도전 가세

출판기념회서 공식 선언...오세훈·황교안과 '빅3' 대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전이 '빅3'의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데 따른 것이다. 보수진영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혀온 '빅3'의 대결이 현실화한 모양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타워에서 열린 저서 '당량의 꿈' 출판기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 남은 모든 것을 던져 당의 재건과 정권탈환에 앞장서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로

물러난 지 7개월여 만이다.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황 전 총리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전안함 기념관을 방문했다. 해군 2함대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겪은 부대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안보 행보로 해석된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오 전 시장은 강원 원주를 방문, 핵심 당원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당성을 공약했다. 이후 지역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을 촉구하는 속초시민 규탄대회에도 참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전국 경제 활성화 정책"

한국당 안상수 의원 광주 방문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상수 국회의원은 30일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전국 공모하되 호남은 지역구 당선이어려운 만큼 비례대표 예비후보를 지명해서 그분들이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46명 정도 비례대표 예비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데 적어도 당선권에 호남에서 3~4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밝힌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조기에 선거 불을 일으키고 총선에서 이겨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권 후보라는 분들은 백의종군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지원 연설해서 불을 일으키고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고 나서 대권 후보 경선을 해야 한다.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면 계파 싸움하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손학규 "광주수영선수권 최대한 지원"

바른미래, 특별위 구성

바른미래당은 30일 오전 손학규 대표를 상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0여국에서 1만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전 세계 10억명 이상이 실시간 중계로 경기를 관람한다"며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만큼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인천해운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다들 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론이 '선심성 총선쇼', '세금낭비'라며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예타 면제 논란과 관련,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기대에 감사한다. 정 수석은 "이번에 면제 적용을 받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라며 "일방적인 예타 방식을 거치면(사업)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 면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다들 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 대표와 함께 지원특위 공동위원장 맡은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이번 대회의 적극적인 홍보·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유발 효과도 엄청나고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회는 2020년도 교울림픽 수영 종목 출전권이 배정돼 있어 많은 스포츠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북한선수단의 대회 참여가 이뤄지면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가 호주 멜버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같이 글로벌 명품 도시로 도약하는 모멘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범정부적 지원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 "국가 균형발전" vs 야 "총선 앞 퍼주기"

여야 '국책사업 예타면제' 공방

여야는 30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표행위"라며 "이

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야권이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화당 김정은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공항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번엔 다시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례"라며 "경제를 정치로 풀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의 성명에서 "장권의 취사선택에 따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2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과 연

임야

단독섬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운영체제가 미비한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삽입이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은 분
 - 대표 당대리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인·출력 유효범위
 - 태양광 부지 운영 경험자
 - 태양광 계약서 작성 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에너지·수질·토목·환경·건설·엔지니어링
문의처 : 영업부 02-340-7942, ksc@dae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대상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라코	수질관리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세라믹 (장비·재료)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채용처: 영업부 02-340-7942, ksc@daesco.kr, 문의처: ~ 세라믹사업부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